

향가의 언어학적 해독

李 賢 熙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잘 알려져 있다시피 향가는 “삼국유사”(1285)에 실려 있는 14수, “원통양중대사균여전”(1075, 이하 “균여전”이라 약칭함)에 실려 있는 11수, 그리고 “평산신씨장절공유사”(이하 “장절공유사”로 약칭함)¹⁾에 실려 있는, 1120년에 고려 예종이 지은 ‘도이장가’ 1수 하여 도합 26수가 전해 오고

1) 이 평산신씨의 추원록이라 할 수 있는 “장절공유사”에 들어 있는 신송점의 행장 부분에 ‘도이장가’가 수록되어 전해 오는바, 이 자료는 우리 학계에 안자산(1927)이 처음으로 소개하여 김태준, 양주동 등에 의해 다시 언급되어 왔다. 안자산(1927)은 이 ‘도이장가’ 이외에도 4-5종의 향가를 구해 보았으나 아직 완전한 고증이 닿지 않아 발표하지 못하고 후일을 기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4-5종의 향가 속에 뒤에 언급될 “화랑세기”의 향가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김동욱(1966)에 의하면, “장절공유사”는 1922년에 간행된 “평산신씨태사장절공유사 열성수교”와 1926년에 간행된 “장절공신선생실기”류의 두 종류가 전해 오는데, 전자에는 ‘도이장가’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후자에는 ‘도이장가’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안춘근(1986:276-281)에 의하면 전자류인데도 ‘도이장가’와 그 한역시가 실려 있는 “열성수교”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1864년에 충훈부에서 간행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최근에 김동소 교수에 의해 새로운 자료 “평산신씨계보”(1642)가 발굴되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이른바 ‘御題四韻’의 한시에 두 글자가 달리 되어 있고 ‘도이장가’의 향가에 ‘久乃’가 아니라 ‘矣乃’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창균(1994:1104-1105)를 참조하기 바란다.

있다.²⁾ 우리 학계에서 향가에 대한 관심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 다시 그에 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향가를 새로이 해독한 연구서가 속속 출간되어 나왔을 뿐 아니라, 새로이 알려진 필사본 “화랑세기”에 향가 1수가 등재되어 있다 하여 화제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 “화랑세기” 소재의 향가는 현전하는 “화랑세기” 자체의 위작 여부 때문에 관심의 표적이 덜 되었을는지 모르나, 이는 1920년대에 “균여전”에 향가 11수가 들어 있다고 새로이 알려져 학계에 화제가 되었던 사실과 1927년에 자산 안확이 “장절공유사”를 발굴하여 ‘도이장가’를 소개한 사실을 상기시킬 만큼³⁾ “화랑세기”가 처음 알려졌을 1989년 당시에는 대단한 화제가 되었었다.

향가는 이미 문학적으로 다시 재형상화되었을 만큼 현재의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것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김장동의 연작소설이나 김한룡의 아동용 소설⁴⁾은 그 현대화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향가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로 이미 다가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해독되지 않은 향가를 대상으로 하여 지나치게 문학적인 해석에 의지하여 형상화하는 일은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20년대 초기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향가가 부분적으로 해독되기 시작한 이래, 오구라(1929)를 거치면서 향가에 대한 전반적인 해독이 이루어지고 다시 양주동(1942)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이 된 후, 김완진(1980)을 거쳐 다듬어지고 하여 최근에 유창균(1994)와 강길운(1995)에 의해 새로이 전면적인 해독이 된 계적을 좇아 가며 향가에 대한 언어학적 해독을 언급해 보고자 한

2) 현전하는 향가의 숫자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먼저 ‘도이장가’를 향가로 간주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정서의 ‘정과정’을 향가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며, “균여전” 소재의 보현십원가를 한 수로 보느냐 11수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3) “삼국유사” 소재의 향가는 이미 이전에도 알려져 있었지만, “균여전” 소재의 향가는 일본인 有賀啓太郎이 ‘圓通兩重大師均如傳’이라는 글을 그의 저서 “四十七祠院”이라는 책 속에 수록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경위는 안자산(1927)과 오구라(1929), 그리고 유창균(1994)에 담겨 있는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장절공유사” 소재의 ‘도이장가’는 안자산(1927)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이 “장절공유사”도 위작 여부로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4) 이 소설류는 김장동의 소설집 “소설 향가”(1993, 태학사)와 김한룡의 어린이용 소설 “우리의 옛노래 향가”(1994, 대교출판)를 가리키는바, 이들은 다 “삼국유사” 소재의 향가 11수를 현대적인 소설로 재형상화하였다는 공통성을 가진다.

다. 일반 독자들이 읽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자 하나 향가 자체가 워낙이 어려운 과제라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

2.

향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독 방법은 향가가 씌어진 당대의 언어로 해독해 내는 방법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삼국유사” 소재의 향가는 신라시대의 언어로 해독하고, “균여전” 소재의 향가는 11세기 고려시대의 언어로 해독하며, “장절공유사” 소재의 향가는 12세기 고려시대의 언어로 해독할 것이 요청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이상적인 견해일 뿐, 실지로 우리는 신라시대의 언어와 고려시대의 언어에 대한 전모는 말할 것 없고 그 편린조차도 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오히려 역으로 향가를 통해 그 당시의 언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가의 해독에는 후대의 논리에 의한 해독이 시도될 수밖에 없었다. 양주동(1942)가 이두나 지명, 조선시대의 옛문헌에 담겨 있는 언어에 크게 의지하였고, 서재극(1975)가 현대의 경주방언에 크게 의존한 일이나 유창균(1994)가 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의 한자음에 의지한 일, 그리고 김선기(1967-1975)와 강길운(1995)가 국어와 친족관계에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인근 제어와의 비교에 크게 의지한 일이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석독구결 자료라고 불리는 구결자료가 쏟아져 나와 적어도 12-13세기 고려시대의 언어를 형태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장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의 해독에는 이와 같은 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연구성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향가 해독의 실재를 약간 살피면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한글 문헌에 담겨 있는 몇 어형도 향가의 해독에 원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문법형태의 통합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 후대의 어형이 도움을 주는 바가 많다. 몇 예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종판 “삼강행실도”에 실려 있는 ‘뵈읏다(충신 6)’라는 어형 속에서 향가나 고려시대 구결자료에 꽤 많이 보이는 어미구조체 ‘흠叱如’의 잔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향가의 해독에는 分節이 중요하다. 특히 이른바 三句六名과 관련하여 분절이 향가의 기본적인 이해를 보인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삼국유사”나

“균여전” 소재의 향가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분절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절공유사” 소재의 향가는 분절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삼국유사” 권 3의 ‘원송홍법주’에 언급된 바 있는, ‘윗 글자는 새겨 읽고 아랫 글자는 새겨 읽지 않는다(譯上不譯下)’는 원리가 향가의 해독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말하자면, 이는 후술될 ‘訓主音從’의 원리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새김 자체가 후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와 한자음과 관련된 문제도 생겨난다. 삼국시대에 창작된 향가와 고려시대에 창작된 향가에서 음독되는 글자는 어떤 한자음으로 읽었느냐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삼국사기” 지리지에 실려 있는 지명을 연구하면서 봉착하였던 문제와도 동계의 것이라 할 것이다.

향가가 담겨 있는 문헌은 여러 번 전사되는 과정을 거친 후대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헌 자체에 대한 원전비판을 행하여 오자를 보정하고 탈자를 끼워 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삼국유사”는 그 이본이 여럿 존재하고 있어 상당한 교감이 행해져야 할 정도로 차이를 보이거나 다행히도 그에 담겨 있는 향가는 이본 사이에 글자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균여전” 소재의 향가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유창균(1994)에 의하면, 최근 김동소 교수에 의해 새로운 자료 “평산신씨 계보”(1642)가 발굴되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이른바 ‘御題四韻’의 한시에 두 글자가 달리 되어 있고 ‘도이장가’의 향가의 일부분이 ‘久乃’가 아니라 ‘矣乃’로 되어 있다. 이를 보면 오자나 탈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확증이 없는 한 가급적이면 오자나 탈자를 가정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몇 수 안 되는 향가이기는 하지만 어떤 글자가 어떤 독법을 가지고 쓰였는지 계량적으로 점검해 보는 방법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문자설은 김완진(1980)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支’자가 앞에 오는 글자를 혼독할 것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 지정문자설은 향가의 연구에서 대개 부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강길운(1995)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支’자 외에 ‘支’자도 지정문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정문자설은 구결의 연구와 이두의 연구에서도 원용되어 확산된 바 있다. 구결의 연구에서는 이승재(1993)에서 고려본 “화엄경”의 석독구결에 보이는 약체자 ‘支’가 지정문자인 것으로 주장되었고, 이두의 연구에서는 서종학(1995)에서 ‘內’자가 지정문자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주장된 바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문자의 운용상으로 볼 때 향찰, 구결, 이두의 뿌리가 같다는 종합적인 견해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향가의 해독에 대한 기준은 양주동에 어느 정도 마련된 이래 김완진(1980)에

서 가장 정치한 해독 기준이 마련되었다. 여기에서는 김완진(1980)에서 마련된 해독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먼저 훈주음종의 원리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윗 글자는 새겨 읽으나 아랫 글자는 새겨 읽지 않는다’는 ‘譯上不譯下’의 원리와 거의 같은 것으로서 어떤 어형을 표기함에 있어서 개념에 해당하는 차자를 앞에 놓고 그 한자의 뜻으로 읽게 하고 그 어형의 끝부분에는 음으로 입을 차자를 놓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한 어형 내에서 ‘말음첨기’에 의해 뒷 부분이 음으로 읽힐 차자를 놓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 원리는 한 어형 내에서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가 결합해 있는 어형이 대개 어휘형태소에 해당하는 차자는 훈으로 읽고 문법형태소에 해당하는 차자는 음으로 읽는 표기 원리와 유사한 일면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일자일음의 원리이다. 이는 이승녕(1955)에서 제창된 것으로서 한 차자는 원칙적으로 한 음으로 읽힌다는 원리이다. 향가의 표기가 매우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원리가 수립됨으로써 어느 정도 과학적인 해독의 원리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글자를 여러 음으로 읽는 자의성이 해독 과정에서 지양될 수 있는 기본원리가 되었다.

맥락 일치의 원리 및 울조적 기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준들인바, 전자는 문장의 맥락 안에서 가지는 의미와 관련되고 후자는 향가도 시가인 만큼 일정한 울조를 해독에서 배려해야 함을 가리킨다.

3.

이제 향가를 구체적으로 해독한 작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삼국유사” 소재의 향가 한 수를 대표적으로 들어 언급하기로 한다.

다음은 “삼국유사” 소재의 ‘祭亡妹歌’이다.

- (1) 生死路隱 / 此矣有阿米次昝伊違 / 吾隱去內如辭叱都 / 毛如云見去內尼叱古 /
 於內秋祭早隱風未 /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 一等隱枝良出古 / 去奴隱處毛冬平
 丁 / 阿也 彌陀剎良逢乎吾 / 道修良待是古如

이것은 10구체 향가이다. 이 향가의 각 구에 대한 해독을 다음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글의 성격상 해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언급되어 온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의 생각을 약간 가미하여 언급해 나가기로 한다.

1. 生死路隱 : 중세국어의 지식으로써는 '生死 길흔' 정도로 해독될 수 있다. '生死'는 '죽사리'라는 고유어로 바꿔 볼 수도 있다. '路'는 훈차 표기, '隱'은 음차 표기로 되어 있다.

2. 此矣有阿米次脣伊遣 : '此矣'는 중세국어로는 '이에' 정도에 해당한다. '此'는 훈차 표기, '矣'는 음차 표기된 것으로 보이나 '矣'자가 일반적으로는 차자표기 자료에서 '티'로 읽히고 극히 드물게 '의'로 읽힌다는 점과는 거리가 있다. '有阿米'는 '이시(동사 어간) + 암(동명사형어미) + 애(조사)'의 연속체를 표기한 것으로서 '有'는 훈차 표기를, 나머지 두 글자는 음차 표기를 하였다. '米'를 대개는 원인을 뜻하는 연결 어미로 파악해 오나, 적어도 근대국어 이전에 나온 한글 문헌에서는 '-매'가 연결 어미로 쓰이지 않았고, 근대국어 단계에서 동명사형 어미 '-음'과 조사 '-애'의 통합체가 변화한 '-오매'가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암'에 해당하는 것이 동명사형 어미로 사용되었음이 특이하다. 신라시대 이두자료에서 '牙'로 훈차 표기되었던 동명사형 어미와 관련이 있다. 이와는 달리 '米'를 뒤의 동사 어형에 붙여 해독한 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 자체를 의문 부사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한 학자도 있다. '次脣伊遣'은 동사의 활용형을 표기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의 활용형을 표기했느냐 하는 데에는 학자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遣'은 연결 어미 '-고'에 해당하나 어찌하여 음상이 '고'를 유지하는지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이런 점에서 경주방언을 이용하여 연결 어미 '견'을 음차한 것으로 파악한 학자도 있다.

3. 吾隱去內如辭叱都 : '吾隱'은 중세국어에서의 '나'나 내지 '난'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吾'는 훈차 표기, '隱'은 음차 표기되었다. '去內如'는 중세국어의 '가'나'다'에 해당하는 어형이다. '去'는 훈차 표기, '內'는 음차 표기를 하였고, '如'는 문법형태인데도 특이하게 훈차 표기되었다. 최근에 발굴되어 나온 중세국어 문헌자료에 "갈다"의 의미를 가지는 용언으로 '다'나-'가' 두 예 존재하기 때문에 '如'가 '다'나-'의' '다'와 관련이 있음이 쉽게 이해될 수 있게 되었다. '辭叱都'는 '말'나'도' 정도로 해독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辭叱都'가 '叱辭都'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叱'이 표기하는 '-스'은 앞의 '가'나'다' 뒤에 붙는 문법형태가

되고 ‘辭都’는 ‘말도’에 해당하는 어형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중세국어의 ‘가늑닷 말도’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중세국어에서 빈번히 보이는 문장 표현이 되어 무리가 없다. 그러나 함부로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이해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辭叱都’를 ‘마룻도’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도 있다. 이렇게 되면 ‘叱’은 “말”이나 “말씀”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의 말음을 첨기한 표기가 된다.

4. 毛如云遣去內尼叱古 : ‘毛如’는 앞은 음차, 뒤는 훈차를 하여 ‘모다’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毛’가 ‘모’이라는 음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云遣’은 중세국어의 ‘니르고’나 ‘니르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去內尼叱古’는 ‘가늑닛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去內尼叱古’에 호응할 의문사가 문면에 있어야 할 터인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박창원(1995)는 제2구에 들어 있는 ‘米’자를 의문부사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의문부사가 이 동사의 활용형과 호응하는 것이 된다. 이 ‘去內尼叱古’는 칭자를 높여 대우하는 공손법을 담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구절들에 나오는 종결형들은 다 높이지 않는 공손법등급을 담고 있어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호응하는지도 앞으로 더 구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5. 於內秋察早隱風未 : ‘於內’는 의문사를 표기한 것이다. 적어도 중세국어까지는(근대국어 시기까지도 그러하다) ‘어느’, ‘므슴’, ‘엇디’ 등이 미지칭인 의문사로만 쓰였지 부정칭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이 의문사 ‘於內’는 그와 호응할 의문 어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된다. 이 의문사 ‘於內’는 의문관형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의문부사로 쓰인 것으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중세국어에서 ‘어느’(혹은 ‘어니’)는 대명사, 부사, 관형사로 다 사용된 어사였는데, 여기서는 “어느 가을” 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찌 가을에 …… 하였느냐” 하는 표현에 사용된 의문부사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제8구의 ‘毛冬乎丁’에 대한 설명에서 더 다루어질 것이다. ‘秋察’은 중세국어의 ‘ㄱ술’에 해당하는 명사를 표기한 것인데 ‘察’의 두음이 문제시될 수 있다. ‘早隱’은 ‘이른’으로, ‘風未’는 ‘버루매’로 이해되는 어형들이다. 훈차-음차의 순서로 차자가 배열되어 있다.

6.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 ‘此矣’와 ‘彼矣’는 제2구의 ‘此矣’를 원용하여 중세국어의 ‘이세’와 ‘더에’에 해당하는 어형으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浮良落尸’은 ‘브러덜’ 내지 ‘브어덜’로 읽을 수 있는 곳이다. ‘葉如’는 해독상 ‘뉘곤’이나 ‘뉘다’가 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如’는 중세국어에 보이는 ‘다ㅎ-’의 ‘다’를 표기한 것이다.
7. 一等隱枝良出古 : ‘一等隱’은 ‘ㅎ든’ 정도로 해독된다. ‘隱’은 말음첨기 표기된 것이다. ‘枝良’는 ‘가지라’ 정도로 해독되어 왔다. 중세국어에 ‘가지에’로 나타나야 할 어형이 ‘가재’로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자’로 읽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가 한다. 물론 이 경우는 ‘良’이 구결표기에서 ‘아’ 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出古’는 ‘나고’ 정도로 해독된다. 여기서 연결 어미 ‘-고’에 해당하는 문법형태의 표기가 ‘遣’이 아니라 ‘古’로 표기된 점이 특이하다.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다. ‘-셔’에 해당하는 표기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터이나 이 구가 6음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당연히 ‘-셔’에 해당하는 표기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셔’에 해당하는 문법형태가 적어도 13세기까지의 차자표기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셔’의 문법화가 이보다 훨씬 뒤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8. 去奴隱處毛冬乎丁 : ‘去奴隱’은 ‘가논’으로, ‘處’는 ‘곧’으로 해독되어 전혀 무리가 없다. ‘毛冬乎丁’은 해독상 이견이 많았던 어구이다. ‘毛冬’은 동사어간으로 쓰였는데 ‘모돌-’로 해독된다. 중세국어의 ‘모르-’는 그 기저형이 ‘모롤-’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는데 ‘모돌-’이 그에 대응하는 것이다. 어중에서 ‘ㄷ > ㄹ’의 교체현상이 후대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乎丁’은 대개는 ‘-온더’로 해독되었는데 감탄형으로 이해되어 왔다. 적어도 중세국어에서는 ‘-ㄴ더’가 감탄형 어미로만 쓰였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내려졌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발굴되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려시대 구결자료에 나타나는 양상을 볼 때, ‘乎丁’에 대응하는 어미들이 고려시대에는 두 가지 용법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감탄형 어미로 사용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의문형 어미로 사용된 것이다(정재영 1995 참조). 의문형 어미로 사용될 경우 ‘-ㄴ더’는 대개는 2인칭 직접의문형 어미에 대응하는데, 이것은

중세국어의 한글 문헌에서 ‘-ㄴ다’로 나타났던 것이었다. 이 ‘-ㄴ다’에 해당하는 어미 외에 ‘-르다’에 해당하는 어미는 의문형 어미로만 쓰였다고 보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5구의 의문사 ‘於內’는 이 제8구의 ‘모드르다’ 정도로 해독되는 용언과 호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독될 경우 제4구에서 ‘去內叱古’로 높여 대우했던 인물과 여기서 ‘毛冬乎丁’로 표현되어 높여 대우받지 않는 인물이 동일인일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9. 阿也 彌陀剎良逢乎吾 : ‘阿也’는 음차 표기로서 ‘아야’로 족하다. ‘彌陀剎良’는 ‘미타찰아’로 해독되는바, ‘良’이 처격조사로 사용된 것이다. ‘逢乎’는 현재로서는 ‘맞보울’ 정도로 해독할 수밖에 없다. ‘맞보-’가 동사어간 ‘맞-’(迎)과 동사어간 ‘보-’(見)가 합성한 동사라서 ‘逢’자 하나에 대응시키기 만족스럽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逢乎’를 ‘마조’로 해독하여 “맞이하도록, 맞을 때까지”로 이해한 학자도 있었던 것이다. ‘吾’는 ‘나’로 족하다. 그런데 제10구의 ‘待是古如’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吾’가 주격형인지, 아니면 대격형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

10. 道修良待是古如 : ‘道’는 한자어 그대로 ‘도’로 해독하거나 훈독하여 ‘길’로 해독할 수 있다. ‘修良’는 현재로서는 중세국어의 ‘닷가’에 대응시킬 수밖에 없다. ‘풍요’에는 ‘修叱如良’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와는 차이를 보인다. ‘待是古如’의 ‘待是’는 동사어간 ‘기드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독하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다. 문제는 ‘古如’를 ‘-고다’로 해독하면서⁵⁾ 학자마다 그에 대한 이해는 다른 면을 많이 보인다. 지금까지는 미래를 표현한 선어말 어미라는 견해와 희망을 표현한 선어말 어미라는 두 견해가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고려시대의 구결자료에 나타나는 바로는 일종의 선어말 어미로 사용된 ‘古’는 두 가지 용법을 보인다. 하나는 이른바 확인법의 선어말 어미 ‘去’와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古’요, 다른 하나는 희망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古’이다. 그러나 이 향가 외에 ‘안민가’에도 쓰인 ‘古如’도 그러하거나 이 문맥에서는 ‘古’가 희망을 의미한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5) 학자에 따라서는 ‘古如’를 중세국어의 ‘-고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독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제망매가' 한 수에 대한 해독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해독이 그래 왔던 것처럼 중세국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새로이 발굴되어 나온 고려시대의 구결자료 등에 담겨 있는 언어에 대한 문법지식도 향가의 해독에 유용하게 원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시기적인 거리가 먼 조선시대 중세국어에 대한 지식보다 오히려 시기적인 거리가 짧은 고려시대의 구결자료에 담겨 있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향가의 해독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국면이 없지 않다. 대개는 중세국어의 지식으로써 해독이 되고 이해될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과제는 새로이 발굴되어 나온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이 해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4.

이상으로 이 글에서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향가의 언어학적인 해독에 대하여 주마간산격으로 언급해 왔다. 앞으로 향가에 관심을 가질 분들을 위하여 몇 가지 단서를 중심으로 언급을 해 온 셈이다. 그러나 이 글이 담아야 할 주제를 과연 필자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글을 마치는 지금까지 필자의 머리속에서 맴돌고 있다.

향가는 기본적으로 시가이다. 이는 향가의 해독이 결국 문학적 연구와 어학적 연구가 조화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향가가 어학적인 논리만으로 해독되어서도 안 되고, 문학적인 논리만으로 해독되어서도 안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에 출고(1995)를 통해 향가 '모죽지랑가'의 '居叱沙'를 두고서 문학연구가 신동훈(1990, 1992)가 '*앗사'나 '*잇사'류의 해독이 문학적으로 근사함을 들어 어학적인 해독의 재고를 제기한 일에 대해 중세국어 자체에서도 문법형태 '-사'류가 동사 어간에 직접 통합하는 실례를 들어 그러한 해독이 정당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향가의 해석에 어학과 문학이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예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재홍(1995)의 경우는 향가에 대한 문학적 해석이 어학적 해석과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가를 보인 대표적인 경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재홍(1995)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문학연구자와 어학연구자 사이에 그렇게도 크게 존재한다면 그 연구는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앞으로 문학연구자와 어학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향가 연구가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연구는 개인적으로 행해질지 모르나 인식은 공동의 차원에 서도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향가 연구도 새로이 행해질 수 있는 터전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학계가 발굴해 낸 문헌자료를 통해 신라어와 고려어의 실상에 가까운 모습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향가의 해독도 한 차원 더 깊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화랑세기”의 향가에 대하여 소개를 하기로 한다. 김학성(1996)에서 소개된 두 가지 해독 양상을 다음에 보인다.

(2) ㄱ. 風是(只?)吹留如	브르미 부루(로)다(부로디)
久爲都郎前希吹莫遣	오래 都郎 알피 불디 말고
浪只打如	물겨리 티다(티디)
久爲都郎前打莫遣	오래 都郎 앞 티디 말고
早早歸良來良	일일 도라오라
更逢叱那抱遣(?)見遣	다시 만나 안고 보고
此好郎耶執音乎手乙	이 도흔 郎야 자브몬 소늘
忍麻等尸理良奴	차마 들리려노(돌리려노)
ㄴ. 風是只吹留如久爲都	바람이 불다고 하되
郎前希吹莫遣	임 앞에 불지 말고
浪只打如久爲都	물결이 친다고 하되
郎前打莫遣	임 앞에 치지 말고
早早歸良來良	빨리빨리 돌아오라
更逢叱那抱遣(?)見遣	다시 만나 안고 보고
此好郎耶執音乎手乙	아호, 임이여 잡은 손을
忍麻等尸理良奴	차마 물리려노

(2ㄱ)은 김완진 교수의 해독을 제시한 것이고, (2ㄴ)은 정영찬 교수의 해독을 제시한 것인데 분절에서부터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해독을 따르건 간에 이 향가는 표기가 매우 조잡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만 들자면, 어미구조체 ‘-려노’ 내지 ‘-려노’로 해독되는 ‘-良奴’는 심상치 않은 표기를 보인다. ‘-려노’는 적어도 근대국어 후반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어미구조체이다. ‘-려(고) 흐노(←흐느고)’를 바탕으로 ‘(-고) 흐-’ 생략현상을 거쳐 ‘-려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국어에 가서야 목격되는 현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奴’로써 ‘노’를 표기했다고 보기에다 난점이 없지 않다. 물론 ‘-려노’는 중세국어 시

기에 문중되는 어미구조체이다. 제7구의 '執音乎手乙'은 '현화가'의 한 구절을 상기시키는 표기를 보인다.

앞으로 이 향가 및 그것을 담고 있는 "화랑세기"의 위작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작이 행해졌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1920년대에 위작이 행해졌다는 견해가 옳바르다면 그 위작은 향가 해독의 역사로 볼 때에는 매우 이른 시기에 행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향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던 사람만이 그 시기에 이러한 위작을 해 낼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시기에 과연 누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지 매우 궁금할 뿐이다.

참 고 문 헌

- 가나자와(金澤庄三郎)(1918), "처용가해독", 조선휘보 4.
가나자와(金澤庄三郎)(1936), "이두잡고", 조선휘보 1936. 2.
강길운(1995), 향가신해독연구, 서울: 학문사.
권덕영(1989),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검토", 역사학보 123.
남풍현(1981), 차자표기법연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김동욱(1966), "도이장가에 대하여: 신장절공유사의 서지적·문헌비판적 접근", 인문과학 14·15 합집.
김선기(1967~1975), "향가의 새로운 풀이", 현대문학 145~250.
김선기(1993), 옛적 노래의 새풀이, 서울: 보성문화사.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완진(1986), "신라 향가의 어학적 분석", 전통과 사상(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완진(1987), "삼국유사", 국어생활 11, 서울: 국어연구소.
김준영(1964), 향가상해, 서울: 교학사.
김준영(1979), 향가문학, 서울: 형설출판사.
김학성(1995), "향가와 화랑집단", 한국고전문학연구회 동계학술발표요지.
김학성(1996), "필사본 화랑세기와 향가", 한국고전문학연구회 동계학술발표요지.
남풍현(1988), "균여전", 국어생활 12, 서울: 국어연구소.
노태돈(1995),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 역사학보 147.

- 마에마(前間恭作)(1929), “처용해독”, 조선 172.
- 박용후(1964), “향가와 제주 방언”, 제주도 18.
- 박창원(1995), “제망매가의 해독과 고대국어의 몇 의문”, 한일어학논총, 서울: 국학자료원.
- 서재극(1975),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한국학연구총서(3), 대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서종학(1995), 이두의 역사적 연구,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 성호경(1988), “향가연구의 합정과 그 극복을 위한 모색”, 국어국문학 100.
- 송석래(1991), “향가와 만엽집의 비교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신동훈(1990), “모죽지랑가와 죽지랑 이야기의 재해석”, 관악어문연구 15.
- 신동훈(1992), “모죽지랑가의 시적 문맥”,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서울: 집문당.
- 신재홍(1995), “향가 난해구의 재해석(1): 우적가”, 고전문학연구 10.
- 신태현(1940), “향가의 신해독”, 조선 296.
- 신태현(1943), “소창 박사와 향가 연구”, 춘추 1943. 3.
- 이유가이(鮎貝房之進)(1923), “처용가·풍요·서동요해독”, 조선사강좌.
- 안병희(1981), “서평: 김완진 저 향가해독법연구”, 한국학보 22.
- 안병희(1987), “균여의 방언본 저술에 대하여”, 국어학 16.
-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서울: 문학과지성사.
- 안자산(1922), 조선문학사, 서울: 한일서점.
- 안자산(1927), “麗朝時代の 가요”, 현대평론 1.4.
- 안춘근(1986), 한국고서평석, 서울: 동화출판공사.
- 양주동(1935), “향가의 해독: 특히 원왕생가에 대하여”, 청구학총 1935. 2.
- 양주동(1936), “향가주석산고”, 진단학보 1936. 4.
- 양주동(1942), 조선고가연구, 경성: 박문서관.
- 양주동(1965), 증정 고가연구, 서울: 일조각.
- 양희철(1988), 고려향가연구, 서울: 새문사.
- 양희철(1992), 향가·여요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국문학40년, 서울: 집문당.
- 오구라(小倉進平)(1929), 향가 및 이두의 연구, 경성제국대학 문학부 기요.
- 오구라(小倉進平)(1936), “향가·이두의 문제를 둘러싸고”, 사학잡지 1936. 6.
- 유창균(1991), 삼국시대의 한자음, 서울: 민음사.
- 유창균(1994), 향가비해, 서울: 형설출판사.
- 유창선(1936-), “신라의 향가 해석(연재)”, 신동아 1936.5 - 1936.9.

- 유창선(1936ㄴ), “균여전 향가해석”, 사해공론 2.11.
유창선(1936ㄷ), “원왕생가와 영재우적가”, 조광 1936.6.
이가원(1991), 삼국유사신역, 이가원전집 제28집, 서울: 태학사.
이승녕(1955), “신라시대의 표기법 체계에 관한 시론”, 서울대논문집 2.
이승재(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 국어학 23.
이종철(1983), 향가와 만엽집가의 표기법 비교연구, 서울: 집문당.
이종철(1990), “향가해독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동아출판사.
이 탁(1956), 향가신해독, 한글 116.
이 탁(1958), 국어학논고, 서울: 정음사.
이태길(1989), 화랑세기, 부산: 도서출판 민족문화.
이현희(1995), “‘-샤’와 ‘-沙’”, 한일어학논총, 서울: 국학자료원.
정렬모(1947), “새로 읽은 향가”, 한글 99.
정렬모(1965), 향가연구,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정연찬(1972), “향가 해독 일반”, 서강대학교 인문연구논집 4.
정재영(1995),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25.
정창일(1987), 향가신연구, 서울: 세종출판사.
지현영(1947), 향가여요신석, 서울: 정음사.
최 철·설성경(1984), 향가의 연구, 서울: 정음사.
최 철·안대회(1986), 역주 균여전, 서울: 새문사.
최학선(1985), 향가연구, 서울: 우주.
홍기문(1956), 향가해석, 평양: 과학원.